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 정보

Creating a
Corporate IR
Together

노다지 MAGAZINE

VOL. 04

발행일: 25년 1월 11일



조선 & LNG

LNG사이클의 끝은 언제일까?



MARKET NEWS

HD현대미포 시 61,000 고 72,000 저 58,800 종 71,300 ▲ 10,000 +16.31% 거 2,605,825

- HD현대미포 71,300 +16.31%
- 삼성중공업 9,630 +8.08%
- 비에이치아이 8,040 -1.83%
- 동성화인텍 12,850 +8.44%
- 성광벤드 10,930 +0.09%



한국 조선업, 트럼프 당선으로 새로운 기회 열릴까?

유재현 기자 | 24.10.8 | 와이스트리트 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조선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 및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내 조선업계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LNG 운반선 건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현재 LNG 운반선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업계가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선종 다변화와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나, 법적·정책적 제약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MARKET ISSUE

'세계 최강' 미국 조선업 무너지고 있다.. 한국엔 기회

24.11.26 한겨레

- 미국 조선업 쇠퇴로 해군 함정 건조 역량 약화, 중국에 함정 수에서 뒤처짐
- 중국 조선업은 최신 군함 건조 속도와 규모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음
- 과거 정책(존스법 등)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비용 구조를 초래함
-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조선업 재건 및 해군력 강화 방안을 모색

美 선박보호법 中 견제.. 국내 조선업계 '함박웃음'

24.12.27 알파경제

- 선박보호법은 중국 견제, 美 조선업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발의된 법안
- 美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실제로는 우방국의 도움 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상황
-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군의 MRO 사업과 함께 주요 파트너로 부상
- 한국 조선업은 美 해군의 선박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바이든, 해양 시추 금지조치 발표하자마자..트럼프 "취소할 것"

25.1.08 이데일리

-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11배에 달하는 미 해역에서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함
- 환경 보호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조치는 외대륙붕법에 근거하며 철회를 위해선 의회 개정이 필요함
-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함

삼성중공업, 중국/동남아 조선소와의 협업

주요 내용

- 24년 실적 및 수주 가이드는 달성~소폭 상회 정도를 전망
- LNG선은 70~85척 정도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임
- Oil&Gas 투자 본격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업사이드 발생 가능
- 암모니아는 향후 꾸준히 연간 40척 정도 나올 것
- 해양 쪽은 25년에도 1기 이상, 26년에도 물량을 기대해 볼 수 있음

#LNG 가스선

- LNG선은 연간 70척 흐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클락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85척 정도를 전망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으로 Oil&Gas 관련 투자가 25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양

- 클락슨자료를 보면 24년부터 10년간 평균 1,000억불 투자 진행될 것
- 5년 이후 투자가 급감하면서 현재 생산 중이거나 개발 중 유전으로는 향후 수요량 충족이 어려울 것
- 성공적인 대형 FLNG 3기 건조 경험으로 신규 FLNG 2기 수주 성공

Q. 25년 수주 가이드스 발표 예정일은?

- 1월 말 ~ 2월 초에 하지 않을까 싶음

Q. 미국 LNG 발주 속도 전망은?

- 미국은 폴린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바로 될지 확신할 수 없음
- 밀렸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HD한국조선해양, 계절적 비수기에도 영업이익 증가

주요 내용

- 친환경 교체수요 장기화 예상하며, 선주와의 파트너십 구축
- 몇 발자국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 선점할 것
-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생산 안정화되고 있음
- 연간 3~5% 생산성 향상으로 초과 달성 중

#한국조선해양

- 별도 영업손실 발생, 나머지 연결사들은 흑자 전환
- 임대 수입 감소하였지만 OP 흑자 달성

#현대중공업

- 조업일수 감소로 매출액 감소
- 조선부문 안정적 성장 지속

#현대미포조선

-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성 올라옴
- Ro-pax선 2척 취소 이후 나아지고 있음
- 하반기 P/C선 2척 신규 투입되며 실적 좋아지고 있음

Q. LNG 시장전망

- 전세계 LNG 수요 증대하면서, LNG D/F 선박 지속될 것
- 현대미포에서 LNG 벙커링선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 벙커링선은 전세계 195개 벙커링 터미널 외에 81개가 건설 중이기에 선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한화오션, 중대재해사고 작업중지 영향

주요 내용

- 저가 컨테이너선 비중 감소, 고가 LNGC 비중 증가하며 흑자 전환
- 필리조선소는 국방교육통제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해상풍력 시장은 부정적 소식들이 있었지만 각국 정부와 개발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임

#LNG선 시황 및 수주 전망

- 22~23년에 걸친 대량 발주로 인해 오버 서플라이어 및 미국 LNG 수출 정책 불확실성으로 신규 발주 속도 조절 일어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환경 규제 및 미 LNG 수출 증가 전망
- 노후화된 스팀터빈 LNG선의 교체 수요들로 인한 LNG선 신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
-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LNG선 발주에 중요한 역할은 영향을 끼칠 것
- 결과에 따라서 LNG 신규 파이프라인 승인 가속화로 LNG선 신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MRO 사업

-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을 국내 최초 수주
- 현재 후속 MRO건도 협의 중
- 미국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는 미국 방산 및 상산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

Q. 내년 매출 및 조업량 전망은?

- 25년 매출은 환율, 기타 외생 변수를 고려하면 업앤다운은 있을듯
- 11조 ~ 11조 후반대로 예상함
- 조업 수준은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한화엔진, 내년 10% 성장 전

주요 내용

- 계단식 실적 개선, 24년 마진은 5~6%대 전망
- 3Q 누적 연간 수주는 1조 5천억 원 수준
- 수주잔고는 3조 2,428억 원. 선박엔진 비중이 96%임
- 중국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보다 중국이 마진이 더 좋은 상황

#수주 상황

- 3Q 신규 수주는 8500억 원
- 누적 연간 수주는 1조 5천억 원 수준
- 컨테이너, LNG는 100% DF로 수주를 받고 있음
- 점유율은 한화오션은 100%, 삼성 97%, 중국은 8.6% 수준

Q. 가동률이 거의 풀캐파 상태인데 증설은 안 하시는지?

- 현재 가동률은 98% 수준
- 저속엔진 증설 관련 당장 정해진 것은 없음
- 내년 초에 좀 더 명확해지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 현재 수주하고 있는 건 27/28년 납기분

Q. 25년 중국 수주 예상치는?

- 올해 중국향 수주는 컨테이너선이 많았음
- 투기성 발주가 많았어서 역기저로 내년은 좀 빠질 것으로 생각함
- 수주가 YOY로 빠져도 이미 27~28년 납품은 타이트한 상황
- 연간 수주 1조 이상 예상함
- 특별히 중국 수주가 많다가보다 국내와 고른 비중으로 예상함
- 내년 수주는 LNG선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카본, LNG호황 속 보냉재 시장 성장 지속

주요 내용

- 해상용 LNG 탱크에 들어가는 보냉재를 만드는 선도 회사
- LNG 수요 증대와 더불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 방산, 철도 쪽 신사업 추진 중에 있음

Q. 조선 쪽은 호황인데 터미널 쪽은 기회될 부분 없는지?

- 일부 터미널 하는게 있긴 함
- 매출이 늘긴 했는데 매출 비중에 있어서 임팩트 있는 규모는 아님

Q. FLNG 같은 곳에는 어떤지?

- 전체적으로 보냉재가 필요한 곳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됨
- 정확하게 플랜트 쪽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음
- 삼성중공업 같은 곳에서 보냉재가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겠음

Q. 하반기 증설 완공되었는지?

- 화재 이후 180% 정도 증설한다고 말씀 드렸음
- 24년 5월에 완공이 된 부분임
- 거기서 LNG가 원래 한 사이트로 운영이 됐었음
- 이제 2 사이트로 운영하다보니 이런 부분은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

Q. 환율통한 마진 개선 부분이 있는지?

- 성과는 많이 못 오렸지만 환율에서 방어하는 부분이 있었음

Q. 경쟁사보다 마진이 낮은 이유는 신사업 때문인지?

- 그런 부분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동성화인텍, 작년 하반기 증설완료... 마진개선 구간

주요 내용

-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초저온보냉재 사업을 영위함
- 증설 완료, 연간 매출 800~900억 원 증가 예상
- 단가는 27년까지 지속 상승 전망함

Q. 조선쪽 말고 LNG관련 수혜보는 부분은?

- 육상용 탱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음
- 근데 저희는 FSRU나 FLNG 같은 해양용 플랜트 쪽이 조금 직접적인 수요일 것 같음
- 육상용 플랜트는 한다 하더라도 원래 규모가 큰 편은 아님

Q. 하반기 공장 증설 완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 완료되었음
- 현재 생산하고 있음
-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라인을 추가로 늘림

Q. 척당 단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 작년하고 재작년 수주 단가가 각각 5%씩 올랐음
- 금년 같은 경우에 23년 수주했던 물량이 잡히기 시작함
- 작년에 22년도 수주했던 물량이 잡힘
- 올해는 22년, 23년이 약 50% 씩 잡힐 것 같음
- 그래서 전체적으로 2~3%는 오를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비중들이 27년까지 가면 갈수록 상승되는 효과를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SNT에너지, 미주 쪽 열교환기 들어가고 있음

주요 내용

-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와 HRSG 사업을 영위함
- LNG 쪽 공랭식 열교환기 사용, 북미에서도 공랭식 수요 있음
- 철판 가격 하락 시 유리하며, 변동에 따라 마진 영향을 미침
- HRSG는 마진 높은 수주만 진행 중임

Q. 최근 LNG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수혜보는 부분은?

- LNG 쪽으로도 공랭식 열교환기가 들어감

Q. LNG에 사용되는 쿨러는 마진이 다른지?

- 마진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음
- 프로젝트마다 각자 스펙이 다른 부분임
- 기존 석유화학 쪽과 거의 같은 제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Q. 터미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언제부터 수주를 받을 수있는지?

- 현재 미주 쪽도 받고 있는 건 있음
- 저희가 언제 나온다 말씀드리기에 제품이 천천히 들어가는 부분있음
-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일시적으로 많이 받는다 말씀 드리기 어려움

Q. 대형 HRSG 쪽은 하기 어려운지?

- 그렇다기보다 마진 쪽 생각해서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음
- 아직까지 교환기 마진이 더 좋음
- HRSG는 마진이 괜찮은 수주만 받고 있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섹터 애널리스트 REPORT

삼성증권

한영수 연구원 / 25.01.06

아직 조선업을 떠나기에는 아쉬운 이유들

- 작년 조선업 주가는 81% 상승하며 연말 강세
- 조선업 펀더멘털은 2007년 SUPER CYCLE 수준을 넘어설 만큼 강력하며,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상승이 추가 상승 여력을 뒷받침함
- 2025년은 저가 수주 소진과 환율 안정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HD현대 그룹 조선사들이 경쟁력과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함

S 신한투자증권

이동현 연구원 / 25.01.08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조선업 협력 발언으로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주가가 급등
- 미국 군함 사업 확장 및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는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
- 최근 조선사 평균 PBR은 2.8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나 전방위적 수혜와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성장구간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 / 24.11.19

트럼프 2.0 시대의 석유, 가스

-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 석유·가스 산업은 시추 확대와 에너지 수출 증가가 기대
- 2025년부터 천연가스 터미널 증설로 유럽 수출이 확대되고 내수 전력 수요 증가로 가격 강세가 예상됨
-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은 EOR, CCS 기술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EPA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도 완료, 안정적 성장 기대함

대신증권

양형모 연구원 / 24.11.26

GENAI, 데이터센터, 그리고 천연가스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와 AI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4GW의 천연가스 발전 용량이 필요
- FEED 단계에 있는 256MTPA 규모의 LNG 프로젝트 중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
- 2031년까지 이를 운송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400척 이상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현직자 미팅노트

현직자 소개

일자 : 12월 초순

안녕하세요. 저는 발전 설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대학원에서 연소공학을 전공했어요. 예전부터 발전 설비 쪽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졸업할 때부터 보일러 발전 설비 기본 설계를 계속해 왔고요. 햇수로는 약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업 자체가 주는 매력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Q : 최근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은 어떠신가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양자 컴퓨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전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템인 복합 발전 쪽 HRSG는 사실 탄소 중립 기조에서 보면 중단기적인 정책에 해당합니다. 복합 발전에서는 CO2 배출이 약 45% 정도인데, 석탄 발전의 CO2 배출이 1314%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지만, NET-ZERO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LNG도 연소 시 CO2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영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암모니아 혼소 쪽으로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도 NET-ZERO에 대한 전망 때문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게 되면 필요한 발전량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는 폐기하거나 철거하겠지만, 가동한 지 얼마 안 된 수명이 남은 석탄 발전소는 유지하되 암모니아 혼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다지IR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애널리스트 세미나

다음투자증권 최광식 이사님

일자 : 11월 하순

산업 동향 코멘트

- 2024년 상반기 신조선가지수는 2008년 수준에 근접하며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NG선과 LP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선업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며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LNG 및 메탄올 추진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이후 저가 수주 물량 소진과 함께 한국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 LNG선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중동의 LNG 수출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LNG선 수요가 예상됩니다. LNG DF(Dual-Fuel)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 잡으며 선박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코멘트

- HD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LNG선, LP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반의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투자 매력도 상승 중입니다.
- 삼성중공업 2024년 LNG DF 선박 수주 증가와 컨테이너선 시장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화에 주력하며,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즈클럽을 참고해주세요